

# 본문:사2:12-22

## 제목:샘할 가치도 없는 인생

- 12: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 13: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 14: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 오른 작은 언덕과
- 15: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 16: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 17: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올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 18: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 19: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 20: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 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 21: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 22: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 😊😊2002년 영국 BBC 방송이

영국인 100만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 내용은,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인가?  
 이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사람은 “윈스턴 처칠” 이었습니다.

### 그의 학창시절 생활 기록부는 엉망이었습니다.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 희망이 전혀 없으며, 다른 아이들과 싸움질만 일삼는 문제아 성격도 초라했습니다.

지리 점수는, 겨우 낙제를 면할 정도.  
 그는 3수 끝에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 그러나 그는 지금

세익스피어를 제치고,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는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처칠은, 전쟁터에서나, 국회에서, 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  
는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용기 있는 믿음이 그를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한대의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는, 희망이 없던 소년을 희망을 주는, 지도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사람은 평생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큰 것에서 작은 일까지, 선택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바르고 정확한 선택은, 축복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눈을 뜨지 못하면, 어둠과, 불행과, 저주와, 지옥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성도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바라 보면

때로는 “온면교사” 와 “반면교사” 의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반면교사란?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와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을 의미해요

극히 나쁜 면만을 가르쳐 주는 선생이라는 뜻으로,

따르거나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나쁜 본보기로서의 사람이나 일을 이르는 말.

온면교사란?

다른 사람의, 바른 행위를 통해 교훈을 삼는 것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밝고 복된 길을 걸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혼란한 세상에서, 세상과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2:12-17

12: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13: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14: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 오른 작은 언덕과

15: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16: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17: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올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 ☺☺대저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솟아오른 자)와, 자고한 자(들어 올리다)에 게 임한다.

그들은, 낮아지리라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 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올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 ☺여호와

창조의 날이 있었고, 구속의 날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교만과, 거만과, 자고한 자는?

하나님께 대한, 거역이란 개념은 구약에서 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높은 나무는, 지극히 교만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은, 백성이 의지하는 “요새들” 입니다.

웃시야와 요담이, 이런 망대와, 성벽을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에, 세웠습니다.

이런 국방용 시설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인간적이고 군사적인 시설을, 의지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상” 입니다.

마10:37

37: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 어떤 나라나, 군사나, 재물이나,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교만”입니다.

벧전5:5-6

5:젊은 자들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  
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  
이시리라

## ☺☺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밀으로”

다음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이고 신앙입니다.

## ☺☺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여우가 살았습니다.  
여우는 근처 농부의 집에 몰래 들어가, 닭을 물어갔습니다.

농부는 ‘오죽 배가 고팠으면 그러랴’ 생각하고, 참기로 했습니다.  
이튿날 또 여우가 나타나 이번에는, 오리를 한 마리 물어갔습니다.  
농부는, 한 번 더 참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여우가 또 찾아와서, 닭을 물어가자 농부는, 뒗을 놓고  
마침내 여우를, 잡았습니다.  
농부는 그냥 죽이는 것으로, 분이 풀리지 않아 여우 꼬리에 짚을 묶은 후  
불을 붙였습니다.  
여우가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을 보며 농부는 기  
분이 좋아졌습니다.

## 그러나 여우가 뛰어간 곳은

농부가 1년 내내, 땀 흘려 농사를 지은 “밀밭” 이었습니다.  
여우가 지나갈 때마다, 불길이 번졌고 밀밭은, 순식간에 새로 변했습니다.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신을 화나게 한 대상에게 자제심을 잃고 복수를 했을 때 그 행위로 인한 화가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 ☺사람은 약하고 완전하지 않기에

충동을 억제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노한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 책임은 결국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또 참고 자제함으로 인해 여러분의 “밀밭은” 불에 타지 않을 것입니다.

## ☺교만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인간이, 가로채는 것이며 인간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만감인데 이는 사람을, 죽이는 독버섯입니다.

잠언16:18

18: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19:겸손한 자와 함께 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 ☺교만한 자는 자기 자신의, 올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기에

밝게 비치는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의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자아가, 패어지고 하나님이, 주인으로 역사하셔야 성장과,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 놓고 신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편안함과, 기적과, 형통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교만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새로운 겸손과 인생의 시대를 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2.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사2:18-21

18: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19: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

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20: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 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21: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뜻합니다.

우상에 대한 종합적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135:15-18

15: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16: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17: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18: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여호와와 심판의 특색은, 우상숭배의 근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날에, 우상숭배자들은 그들의 우상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함으로 그 우상들은, 내 던집니다.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졌습니다.

우상은, 은과 금으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돌과, 나무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로 스타가 된 여배우 “오드리 헵번” 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배우로는, 성공을 했지만 여자로서는,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첫번째 결혼에서,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두 번째 결혼에서는, 이혼을 통해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버림받은 여인이라고, 자책하며 살았습니다.

삐뚤어진, 자화상을 가지고

아이도 남편도 가정도 없이 혼자 노년을 지냈습니다.

말년에는, 우울증과, 외로움으로 괴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누가 그녀가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던 1988년 3월,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에티오피아, 수단, 방글라데시, 소말리아 등, 내전을 겪는 지역을 다니며

어린 생명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직장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시한부 인생임을 알게 된 그녀는, 더욱 일에 집착하면서  
체중이, 35kg이나 빠지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소말리아 아이들을 더 걱정하  
였습니다.

그녀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자화상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배우 시절에 아름다운, 외모는 가졌지만 마음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선활동을 통해, 자화상을 발견하고 삶을 바꾸면서, 마음  
이 건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름다운 헵번을 만난 것은  
로마의, 유일에서가 아니고 아프리카에서, 만났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외모와, 인기와, 물질과, 세상이, 우상이 되면 안됩니다.  
신앙이 없거나 약해지면, 두려워지고 우상을 만들고,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 무엇도, 두렵지 않고  
모든 우상을, 미련 없이 버리게 됩니다.

## 😊 엘리야 처럼

왕상18:19

19: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  
자 사백오십 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사백 명을 갈멜 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과 대결하여 완전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 😊😊 오늘날 우상의 “형상뿐만” 아니라

세속주의와, 물질주의로 인하여, 신앙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조금씩, 양보하고 용납하다 보면 모든 것을, 다 내주고 빼앗기게 됩니다.

## 모든 우상은, 다 버리고

수24:15

15: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의에게 중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조상들

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직 하나님만 섬겼던, 여호수아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3.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사2:22  
22: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간은 호흡이 멈추면, 그 생명도 죽어지는  
약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인간이, 생명 없는 우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이고 죽으면, 가치를 계산할 건더기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2:18  
18: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호흡이 붙어 있을 때 만이 생명이고, 인간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시신이고, 시체입니다.

### 시편 기자는

시146:4-5  
4: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흠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5:야곱의 하나님을 짜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짜기 하나님에게 짜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 그 허망함을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흠으로 돌아가서 당일에도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누구나 죽음을 무섭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고전15:55

55: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사망이 쓰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올법이라

57: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성도는 “부활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을 넘어 영원히 사는 것이 성경이고, 기독교이고,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섬길때에,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전 세계가 알아주는 3대 성악가 중의 한 사람인**

호세 카레라스는, 불치의 병을 앓은 적이, 있었습니다.

성악가로서, 그의 명성이 최고조에 달했던 1987년에 그의 나이 41세 되던 해 7월이었습니다.

**유명한 오페라 ‘라보엠’ 에서, 주인공 역을 맡아서**

한참 신나게, 연습을 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는데  
백혈병,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꿈쩍없이, 끝나는구나라고, 생각한 그는**

히스기야를 떠올리며,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조금만 더 연장시켜 주시면, 남은 생애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는 강인한 믿음으로, 투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톱과 발톱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수 이식 수술과 힘든 화학 치료도, 믿음으로 잘 받아 내었고  
마침내 그는, 건강을 되찾았다.

**이때부터 그의 삶은,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다시 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부여받은  
것임을 믿고 전 재산을 팔아, 바로셀로나에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개

단' 을 세우고 백혈병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해 공연에서 얻는 수익금의 절반을 쓴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백혈병과의 싸움을 통해, 나보다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기 위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도 감격과 희망 속에서, 백혈병 환자들에게 새 희망과 삶을 전하는, 전도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 ☺☺ 성경에서는 인생을

사40:6-8

6: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랴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7: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약4:14

14: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외 없이 인간은, 죽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렘18:6

6: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롬9:21

21: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 남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위기에 빠졌을 때 에굽에게 구원을 요청했으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푸라기 같은 에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렘42:17

17:무릇 에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18: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  
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에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람과 저주와 지옥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고  
다가오는 2025년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여  
복에 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